

KDI 경제전망 | 수정

KDI ECONOMIC OUTLOOK | UPDATE

2024년 2월



KDI 경제전망 | 수정

KDI ECONOMIC OUTLOOK | UPDATE

2024년 2월

KDI

KDI 경제전망 연구진

총 합 예 측	관	정 규 철(선임연구위원)
		김 지 연(연구위원)
		김 준 형(연구위원)
		이 유 진(전문연구위원)
국 내 총 생 산		정 규 철(선임연구위원)
		이 유 진(전문연구위원)
경 기		정 규 철(선임연구위원)
		한 승 희(전문연구위원)
소 비		조 덕 상(연구위원)
		한 정 민(전문연구위원)
설 비 투 자		이 승 협(연구위원)
		하 정 우(연구위원)
건 설 투 자		황 세 진(전문위원)
		최 영 진(인턴)
지식재산생산물투자		이 승 협(연구위원)
		하 정 우(연구위원)
수 출 입		김 준 형(연구위원)
		신 웅 재(연구위원)
노 동 시 장		김 지 연(연구위원)
		신 나 라(전문연구위원)
물 가		마 창 석(연구위원)
		이 하 영(연구위원)
금 융 시 장		김 미 루(연구위원)
		양 속 영(전문연구위원)
부 동 산 시 장		문 윤 상(연구위원)
		김 명 호(연구위원)
재 정		이 강 구(연구위원)
		박 창 규(전문연구위원)
세 계 경 제		이 상 규(전문위원)
		이 유 진(전문연구위원)
		한 승 희(전문연구위원)
		전 혜 지(전문연구위원)
편 집 간 사		이 상 규(전문위원)
		전 혜 지(전문연구위원)
		신 용 속(선임행정원)

『KDI 경제전망』은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단기 경제전망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과 대책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은 물론 기업의 경영과 학계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 4회 발간합니다.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.

전화번호 044-550-4114 팩스번호 044-550-4088

※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(<http://www.kdi.re.kr>)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2024년 2월

KDI 경제전망 | 수정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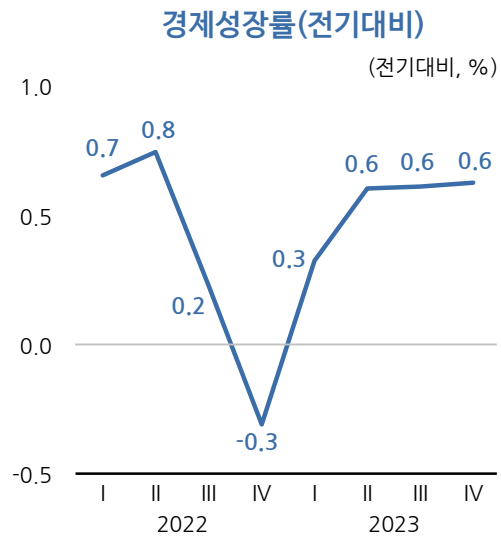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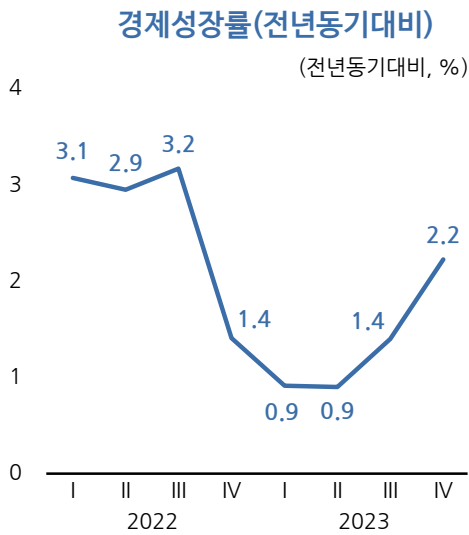
I.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	1
II. 2024년 국내경제 전망	7
1.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	9
2. 2024년 국내경제 전망	10
3. 전망의 위험요인	11

I

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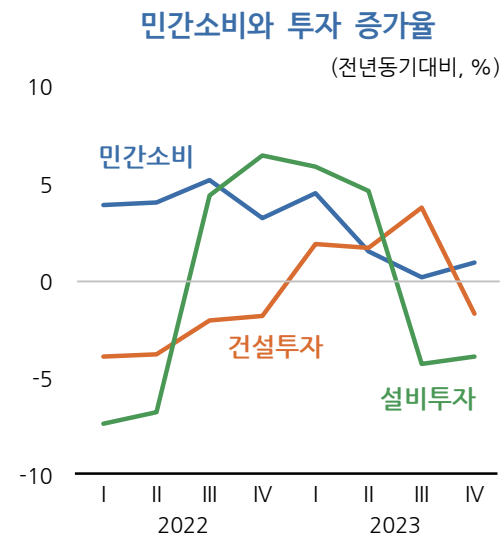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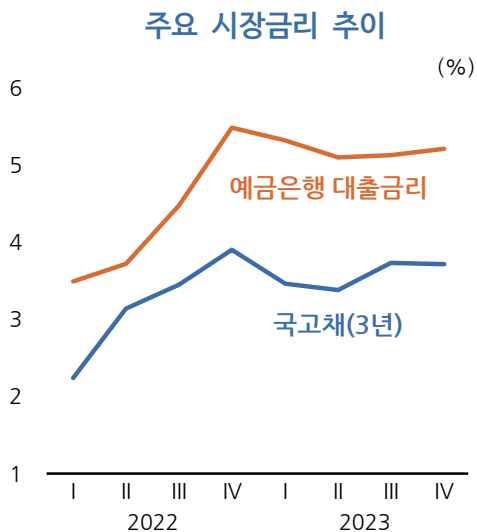
■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

- 2023년 4/4분기 국내총생산(GDP)의 증가세(전년동기대비 2.2%, 전기대비 연율 2.5%)가 확대되면서 경기 부진의 완화를 시사



자료: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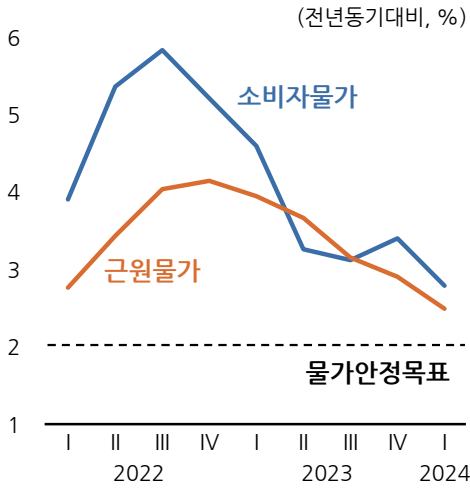
- 그러나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투자는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



주: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임.
자료: 한국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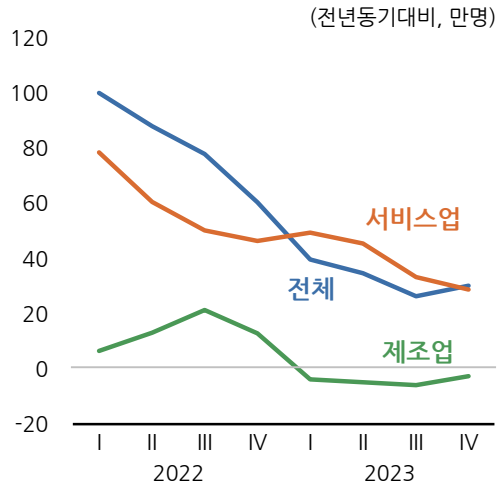
- 내수 부진이 반영되어 물가상승세는 둔화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임.

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상승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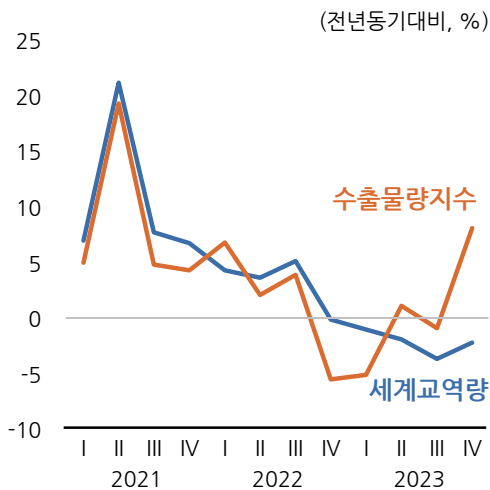
주: 2024년 1/4분기 물가상승률은 1월 기준임.
자료: 통계청.

취업자 수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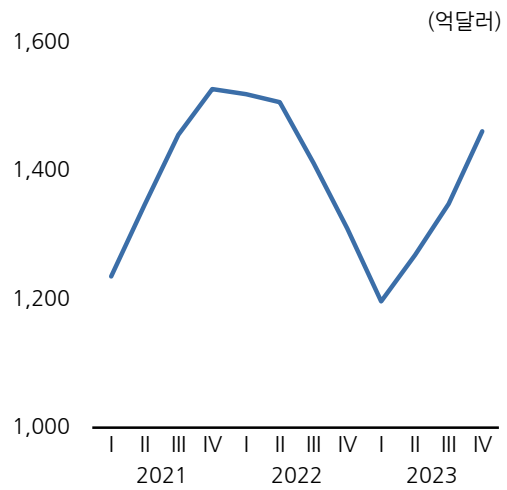
- 반면, 글로벌 교역 위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경기가 상승함에 따라 수출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견인

세계교역량과 수출물량지수 증가율



주: 2023년 4/4분기 세계교역량은 10~11월 기준임.
자료: CPB; 한국은행; WST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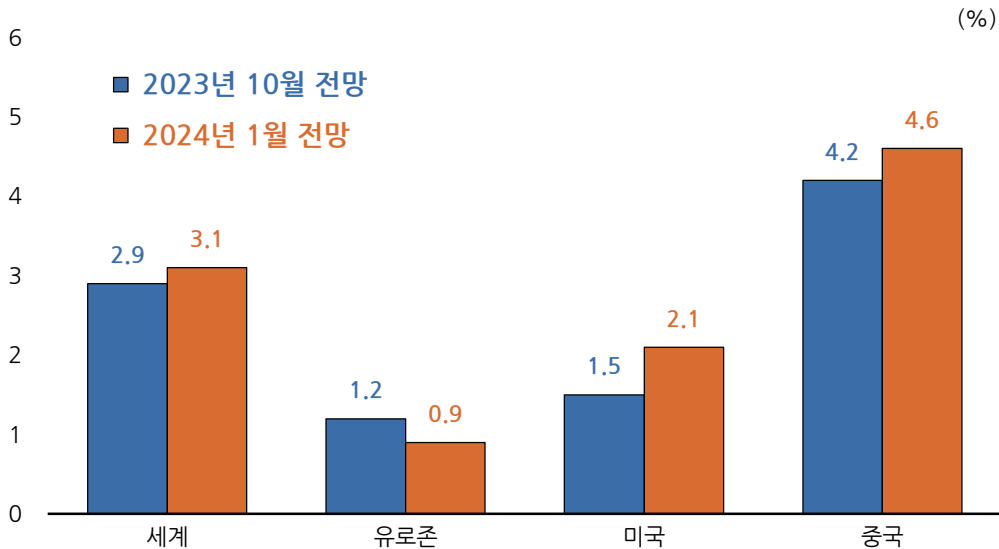
글로벌 반도체 거래액



■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을 보면, 중국과 미국의 경착륙 위험이 축소되면서 **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소 완화**

- 중국경제는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, 정부의 부양책으로 경기 둔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
- 미국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며 우리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 - 다만, 미국의 양호한 경기에 따른 미국 금리인하 기대의 약화는 국내 시장금리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내수에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
- 이에 따라 최근 IMF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3년 10월 전망치(2.9%)보다 0.2%p 높은 3.1%로 상향 조정

주요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IMF의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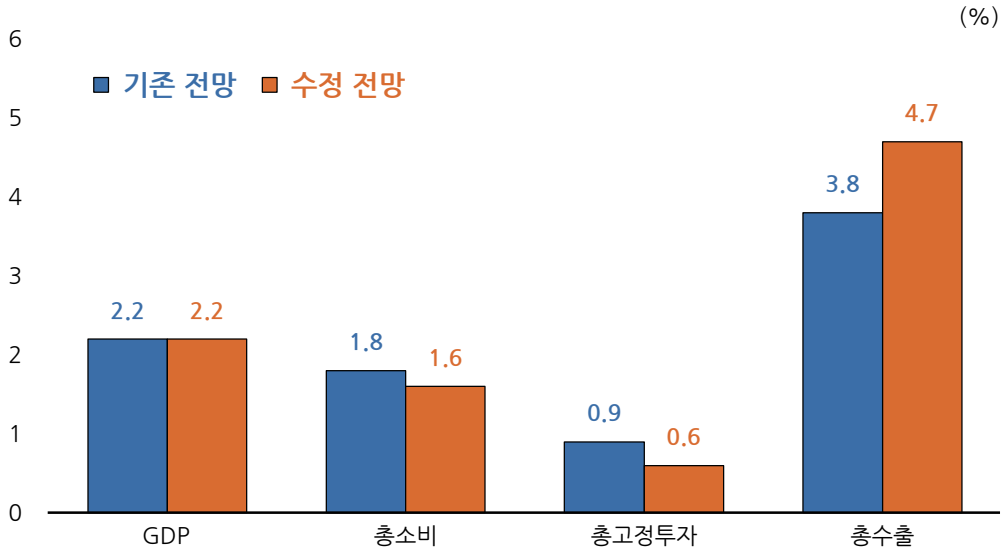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IMF, *World Economic Outlook*, October 2023 · January 2024.

■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, **향후 우리 경제는 2023년 하반기 KDI 전망에서와 같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.**

- 2023년 하반기 실적치를 보면, 경제성장률이 KDI의 기존 전망에 부합하였으나, 지출 항목별로는 기존 전망보다 내수 증가세는 약하고 수출 회복세는 강한 것으로 나타남.
- 이러한 추세가 2024년에도 이어지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다소 심화되는 반면, 수출 회복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건할 것으로 전망
 - 금리 상승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건설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나,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등 수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.
- 내수 부진으로 물가상승세는 기존 전망보다 다소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.
 - 2024년 말에는 기초적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(2.0%)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.

2024년 국내경제 전망(KDI) 비교



주: 기존 전망은 2023년 하반기(11월) KDI 경제전망을 의미함.
 자료: KDI 경제전망.

2024년 국내경제 전망

1.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
2. 2024년 국내경제 전망
3. 전망의 위험요인

1.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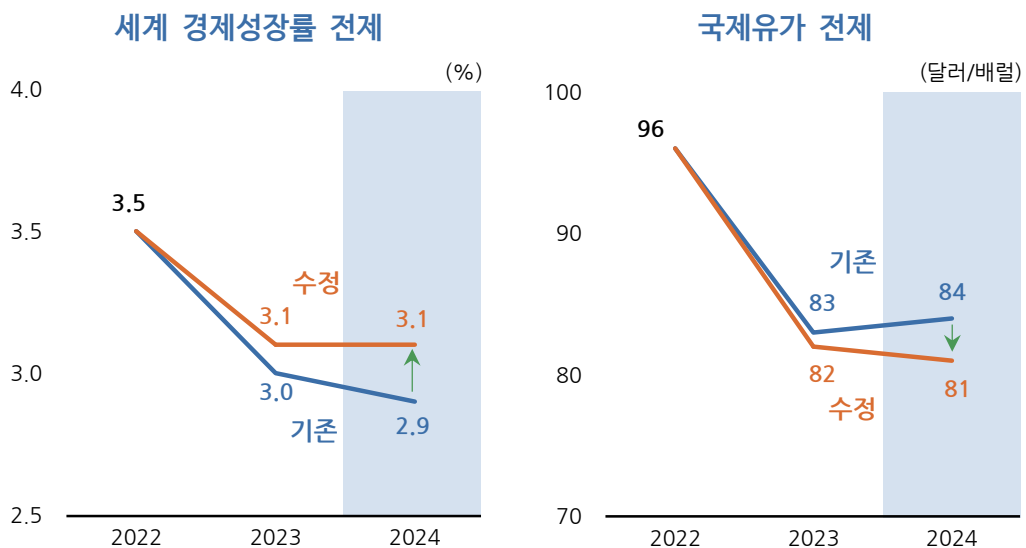
■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제를 기존 전망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

- 최근 IMF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0.2%p 상향 조정한 3.1%로 전망
- 다만,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1~19년의 평균치(3.5%)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

■ 2024년 원유 도입단가(두바이유 기준)는 2023년과 유사한 80달러대 초반으로 전제

- 공급여건의 개선을 반영하여 2024년 유가 전제를 84달러에서 81달러로 하향 조정

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



주: 기존 전제는 2023년 하반기(11월) KDI 전망 전제이며,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임.

2. 2024년 국내경제 전망

■ 2024년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면서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2.2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● 2023년 하반기 실적치가 기존 전망에 부합하였으며, 2024년에도 기존 전망과 유사한 성장세가 예상됨.

- 지출항목별로는 내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,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함.

● 민간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(1.8%)보다 소폭 낮은 1.7%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●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하게 2.3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건설투자(-1.4%)는 부동산경기 하락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(-1.0%)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● 총수출은 반도체경기 반등과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(3.8%)보다 높은 4.7%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● 경상수지는 내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수출 회복세는 확대됨에 따라 기존 전망(430억달러 내외)을 상회하는 560억달러 내외의 흑자로 전망

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(2.6%)보다 소폭 낮은 2.5%로 전망

● 근원물가(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) 상승률도 기존 전망(2.4%)보다 낮은 2.3%로 예상

■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반영하여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기존 전망(21만명)과 유사한 22만명으로 예상됨.

● 실업률도 기존 전망과 동일한 3.0%로 전망

3. 전망의 위험요인

- **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거나, 중국경기가 부동산부문을 중심으로 급락하는 경우**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
 -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 상승, 운송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제약될 수 있음.
 - 중국에서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,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
- **대내적으로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,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**
 -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작겠으나, 향후 관련 부문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.

2024년 경제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, %p, 억달러, 만명)

	2023 ^p			2024			2024 수정폭 ²⁾
	상반기 ^p	하반기 ^p	연간 ^p	상반기	하반기	연간	연간
국내총생산	0.9	1.8	1.4	2.3	2.0	2.2	0.0
총소비	2.9	0.5	1.7	1.3	2.0	1.6	-0.2
민간소비	3.1	0.6	1.8	1.3	2.1	1.7	-0.1
총고정투자	3.1	-0.6	1.2	0.0	1.1	0.6	-0.3
설비투자	5.3	-4.0	0.5	-0.9	5.7	2.3	-0.1
건설투자	1.8	1.0	1.4	-0.7	-2.1	-1.4	-0.4
지식재산생산물투자	2.9	0.3	1.6	2.5	2.6	2.6	-0.2
총수출(물량)	-0.9	6.5	2.8	6.4	3.1	4.7	0.9
상품수출(물량)	-0.9	6.6	2.9	5.9	2.9	4.4	0.9
총수입(물량)	4.4	1.7	3.0	2.9	3.6	3.2	-0.2
상품수입(물량)	1.9	-3.0	-0.6	1.2	3.7	2.4	-0.4
경상수지	11	343	355	208	354	562	136
상품수지	-34	375	341	243	405	649	193
수출(금액)	3,118	3,332	6,450	3,365	3,502	6,867	31
(증가율)	-12.7	-1.1	-7.1	7.9	5.1	6.5	-0.2
수입(금액)	3,152	2,957	6,110	3,121	3,097	6,218	-162
(증가율)	-6.3	-13.6	-10.0	-1.0	4.7	1.8	-1.8
서비스수지, 본원·이전소득수지	45	-31	14	-35	-52	-87	-56
소비자물가	3.9	3.3	3.6	2.7	2.3	2.5	-0.1
근원물가	3.8	3.0	3.4	2.4	2.2	2.3	-0.1
취업자 수(증감)	37	28	33	26	17	22	1
실업률	3.0	2.5	2.7	3.3	2.6	3.0	0.0
(계절조정)	2.7	2.8		3.0	3.0		

주: 1) p는 잠정치임.

2) 2024년 수정폭은 2023년 하반기(11월) 전망 대비 수정폭을 의미함.